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를 향한 활동과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 후쿠시마현의 '지금'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번역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Voices from Fukushima

이번 Voices from Fukushima 는 일본계 4 세, 중국계 3 세의 캐나다인 오오야 나오미씨(후쿠시마시 거주) 를 인터뷰했습니다. 2015 년부터 국제교류원으로서 당 협회와 후쿠시마현 국제과에서 번역과 통역,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8 월에 임기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어, 후쿠시마에서의 3 년간의 추억과 지금의 생각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해피 벨스데이! 이틀 전이

생일이었군요!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생일은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어요. 멀리서 와 준 친구들도 있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오미씨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후쿠시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졌어요. 다른 국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글로벌 커뮤니티 카페 (약칭 : GC 카페) 가 특별히 기억에 남아요. GC 카페는 영어회화 상급자들이 자유롭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획했어요. 밴쿠버에서 알게 된 일본 친구들이 일본으로 귀국한 후 영어로 말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 생각났거든요. 카페 횡수가 더해질수록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세계 속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깊이 있는 테마로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요리교실을 GC 카페에서 열게 된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 담당할 일도 기억에 남는군요. 후쿠시마현 PR 영상의 자막을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그 때는 지금보다 일본어를 못 했고 복구와 도로, 방사능에 관한 지식도 없었어요. 일본에 온 직후였기 때문에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던 것과 앞으로 이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력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되돌아 보면 '더 완벽하게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도 남지만 후쿠시마에서의 3 년간은 제 인생에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부임이 결정됐을 때 방사선에 대한 불안은 없었습니까?

저보다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후쿠시마 부임을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니와 저는 후쿠시마 부임을 두고 매일같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후쿠시마를 방문해 보셨고 그 때 후쿠시마의 인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가족들이 후쿠시마에 놀러 와서 후쿠시마산 야채로 요리를 한 뷔페로 안내했는데 가족 모두 아주 좋아했습니다.

-출장 등으로 현 내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을텐데, 피난구역을 직접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때의 충격은 정말 컸어요. 공포, 분노, 슬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Facebook 에 사진을 올리려고 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몰랐어요. 후쿠시마현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말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고, 후쿠시마의 인상을 흑시라도 안 좋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한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현에 대해서 타 현이나 해외에 알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일단 한번은 후쿠시마를 방문해 보



시길 권합니다. 직접 와 보시면 누구라도 '후쿠시마는 정말 좋은 곳구나!' 라고 감격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타 현에 사는 친구가 저에게 후쿠시마 생선, 야채는 먹지 말라고 충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후쿠시마에 직접 와서 보고는 인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후쿠시마를 향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는 끈기와 온화한 기질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후쿠시마에의 관심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의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후쿠시마여서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미국 소프트볼」 아즈마 구장에서 열전

2020년 도쿄 올림픽 야구·소프트볼의 일부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시 아즈마 구장에서 6월 23일(토) 소프트볼 여자 국제 친선시합이 있었습니다. 시합은 에이스 우에노유키코 투수와 주장 야마다 에리가이 야수들의 활약으로 일본이 2-0으로 이겼습니다. 8천여명의 관객들은 세계랭킹 1위인 미국과 2위인 일본과의 세계 탑 레벨의 플레이에 큰 환성을 보냈습니다.

이 날은 후쿠시마현 각방면에서 모인 블런티어 분들이 대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외국어 블런티어로 참가한 후쿠시마시의 한 여성은 "스타 선수를 한번 보고 싶다! 는 분위기가 회장을 활기로 채웠습니다. 2020년에는 꼭 해외의 손님들도 시합을 즐기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며 올림픽을 향한 기대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합 후에는 양쪽 팀의 기념촬영이 있어 대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쳤습니다. 일본 팀의 우즈기레िका 감독은 "아즈마 구장은 분위기가 좋고 편한 구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후쿠시마 주민분들이 와 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동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노선수는 "올림픽 개최장소에서 시합을 한 것은 선수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도 올림픽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가 더욱 기대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메리카의 젊은이들 아이즈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다.

NPO 법인 아이즈 국제여성협회는,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아이즈 여성들을 위한 활동과 아메리카와 아이즈 어린이들의 문화교류·인재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젊은이들을 초대해 2박 3일의 홈스테이, 학교방문, 시내 관광 등 총 5일 간에 걸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이즈 자베리오학원의 나기나타부 견학과 아카베코 만들기, 캣포우요리와 차노유 체험 등 조우카(城下)마치 아이즈만의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머무는 동안엔 참가자들끼리 일본 전통 옷을 입고 웨딩포토를 신혼커플에게 선물하는 서프라이즈 장면도 있었습니다.

금년, 아이즈 와카마츠시는 '무진 150주년 기념사업' 기획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들이 아이즈 문화와 역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어로 폰데로서케익 만들기 !

캐나다 브리티슈 콜롬비아 대학에서 처음 만든 '폰데로서케익'은 바나나, 초콜렛, 시나몬으로 만든 케익입니다.

1960년에 '폰데로서 빌딩' 앞에 있는 카페에서 남은 바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으로, 인기가 더해지면서 '폰데로서케익'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5월 19일에 열린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Global Community Café ~Cooking Class Edition!!~'에서 캐나다 출신 요리사와 요리사 나옴이사가 밴쿠버 명물인 '폰데로서케익'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이 날은 15명의 참가자와 4명의 게스트스피커가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더 잘 섞어요!" "다음은 뭘 하면 돼요?" "오븐을 예열해야 해!" 등을 영어로 말하며 과자 만들기를 즐겼습니다. 아메리카 출신의 게스트스피커는 "요리를 하면서 사용하는 영어는 보통 클래스와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이라 재미있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국어 부흥정보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 공식 부흥 관련정보 포털사이트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에서는 후쿠시마현 부흥 상황의 최신 데이터와 식품 안전·안심을 위한 활동,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들의 활동 등을 9개국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폰데로서케익' 레시피는 당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http://www.worldvillage.org/files/news_release/files/2496_file01.pdf

● FIA Information

외국 출신자를 위한 생활상담창구 안내
본 협회에서는 외국 출신자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생활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한국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목요일 10:00~14:00

※第4・5木曜日は事前予約が必要

☎024-524-1316 ✉ask@worldvillage.org (상담전용)

●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 024-524-1315 ☎ 024-521-8308
✉ info@worldvillage.org
URL <http://www.worldvillage.org>
Facebook <https://www.facebook.com/fiainfo>
Twitter https://twitter.com/fia_info